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in 서울

# 전국 마을선언 초안 작업

## <진안 토론회 자료집>

일시: 2015.7.30.(목) 오후2시~4시

장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강당

주최: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목 차

순서	페이지
1.행사 개요	3
2.경과 보고	4
3.마을선언 초안	6
4.향후 일정계획	30
부록1: 2015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소개 자료	31
부록2: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소개	38
부록3: 참고 선언 자료	42

# 1. 행사 개요

## <기획의도>

2015년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서울 개최)에서 발표 예정인 ‘마을선언’ 개요 및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 및 보완을 위해 주민/활동가 토론회를 진행함

## <진행내용>

- 일시 : 2015. 07. 30일(목) 14시~16시
- 장소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층 대강당
- 진행시간 : 14:00 ~ 16:00

구분	시 간	소요 시간(분)	순 서	비 고
마을 선언 토론	~14:00	-	등록 및 입장	
	14:00~14:02	2	개회	
	14:02~14:05	3	내외빈 소개	
	14:05~14:10	5	인사 및 격려사	협의회 이사장, 진안 센터장
	14:10~14:20	10	마을선언 준비 경과 공유	김종호 협의회 사무국장
	14:20~14:25	5	행사일정/토론방법 소개	
	14:25~15:25	60	장별 토론(6개 테이블)	초안 작성팀 장별 테이블별 배치: 구자인, 김병권, 유창복, 위성남, 이호 등 장별 책임자 진행
	15:25~15:55	30	각 조별 토론 결과발표	6개조 * 각 5분
15:55~16:00	-	이후 일정 안내 및 폐회		

주최: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문의: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02-6080-0455, 송주민 간사 010-2213-5219

## 2. 경과 보고

### 2015.4.30.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집행위원회 보고 및 공유

-지역 순회 결과 및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전국 '마을헌장'(안) 준비 계획을 수정해, 수위 및 형태가 완화된 '마을선언' 준비를 추진키로 결의함.

### 2015.5.20. 주관단체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이사회 보고 및 공유

-전국대회 집행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올해 9월 전국대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을선언 초안 작업을 정책위원회(위원장 구자인) 주관 하에 진행을 추진하도록 결의함.

### 2015.6.11. 초안 준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진행

-마을선언의 형태, 분량, 내용 등의 초안을 제시하는 제안문 작성 준비위원회 구성  
-주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회  
-작성팀 인력 구성: 구자인(위원장), 김병권, 유창복, 위성남, 이호(이상 4인, 위원)

### 2015.6.18.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집행위원회 보고 및 공유

-마을선언 초안 준비위원회 구성 및 착수 보고(구자인 위원장 등)

### 2015.6.18. 2차 초안 준비위원회 진행

-올해 합의 및 선언할 수 있는 수준, 의견 수렴 방법, 형식 등 논의 및 결정

### 2015.6.26. 3차 초안 준비위원회 진행

-마을선언 초안의 범위, 분량, 형태 등 논의 및 결정

### 2015.7.4. 전국 마을지원센터장 직무연수 워크숍 의견 수렴

-마을선언의 범위, 후작업, 파급 용도 등 의견 수렴

### 2015.7.11. 4차 초안 준비위원회 진행

-마을선언 초안 장별 내용 검토 및 논의(1)

### 2015.7.15. 5차 초안 준비위원회 진행

-마을선언 초안 장별 내용 검토 및 논의(2)

기타: 준비과정 및 논의사항, 회의록 등 상시 온라인 공개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oreamaeul.org>

## ※ 마을선언 작성의 취지 : 준비위원회 정리사항

### 1. '마을선언'의 의미

-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논의 성과를 모으고 나누며 다양한 활동과 사업의 공통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되는 출발점을 확인한다.
- 마을만들기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점검하며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방법론의 차이가 발생할 때 돌아가야 할 지점을 만든다.
- 일시적인 대회 선언문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형식의 의견 수렴과 토론과정을 통해 작성 되도록 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계속하여 점검할 수 있는 원칙으로 본다.

### 2. 명칭 : 왜 마을선언인가?

- '헌장'은 너무 무겁고 딱딱하며 올해 논의 수준으로는 어렵다.
  - 또 다양성 존중 측면에서 '국민교육헌장'과 같이 획일화된 '헌장'이 필요한지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헌장'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좁은 단위에서 결정될 수는 있다.
- 선언'문'이 아닌 것은,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문서화된 선언이기 때문이다.
  - 선언의 전문을 '선언문' 핵심으로 볼 수 있다.
- '서울'선언이 아닌 것은 서울의 집중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를 담는다.
  - 원하지 않게 서울 중심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만한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 마을'만들기'선언이 아닌 것은 특정(?) 활동/정책 영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 인근 영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며 선언문 작업을 한다.
- 매년 검토하고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2015년'을 삽입할 수 있다.

#### 전국 마을선언 초안 준비위원회 작성진 (가나다순)

구자인(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정책연구위원장)

김병권(사회혁신공간 데어 상임이사)

위성남(마포구 마을생태계지원단 단장)

유창복(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집행위원장,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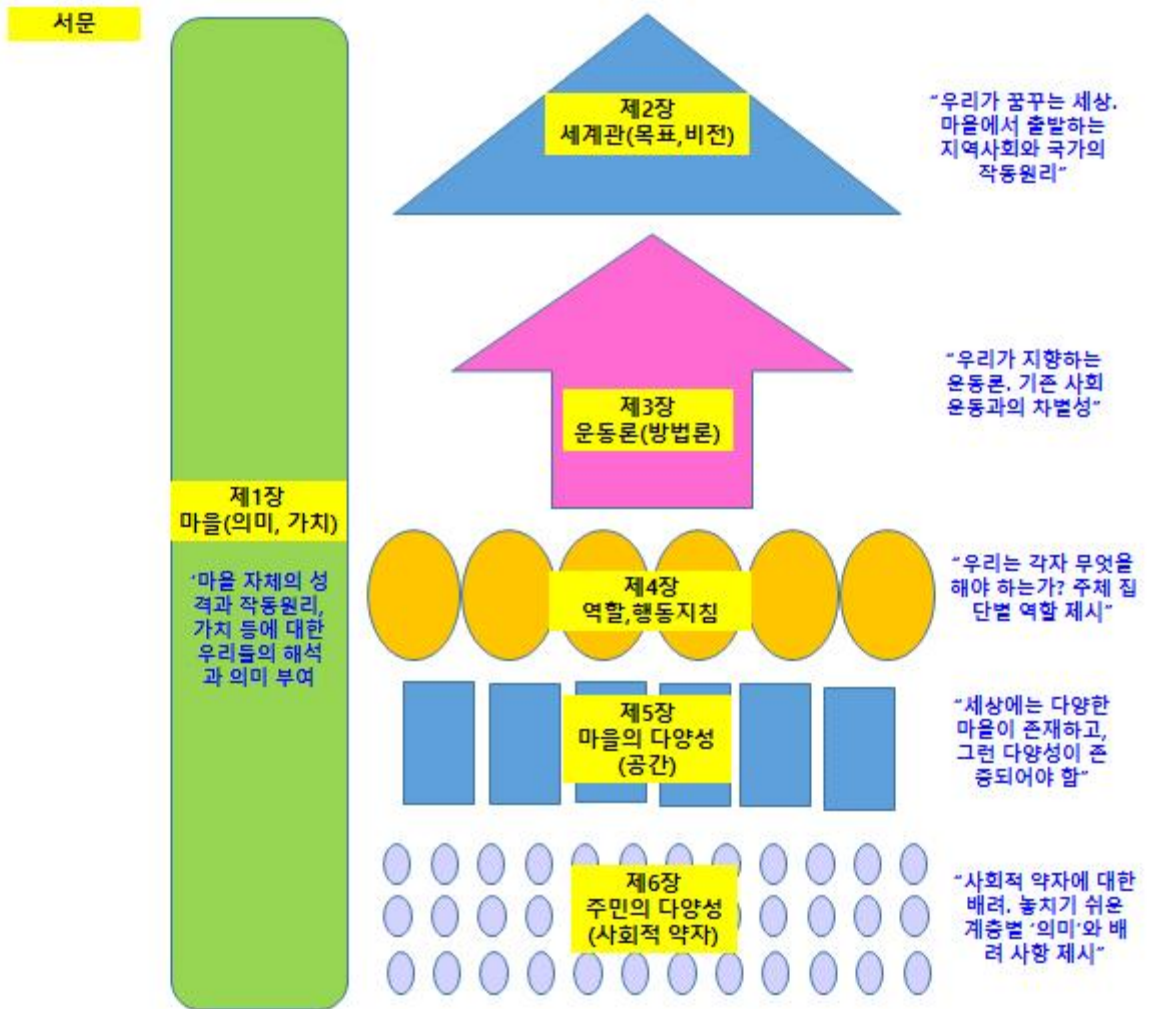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기타 센터협의회 및 전국대회 사무국이 회의 참가

### 3. 마을선언 초안1)

<마을선언 초안의 개념도>

2015 마을선언 in 서울 (개념도)



1) 2015.7.24.까지 초안 작성진이 집필한 내용으로 미완성 상태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취합한 초고임. 각 장마다의 형태, 분량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장들도(6장 등) 있음

## 풀뿌리 마을자치공동체의 '복권'을 위한 2015년 전국 마을선언 in 서울

### <들어가는 말> 마을의 복권을 선언하다<sup>2)</sup>

우리는 전국에서 마을만들기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활동가이고 관련 연구자들이다. 또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현장에서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자이며 관련 사업 및 정책 담당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다.

우리는 2015년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의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맞아,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주체적 참여를 통해 보다 발전되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과제는 현 시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실천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중요한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나날이 심각해지는 문제들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것으로 발현된다. 빈부격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재, 갈수록 흉폭해 지는 범 죄로부터의 방치, 나날이 희망을 잃어가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문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복지 대책의 여전한 부재, 여성들 및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환경파괴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쇠퇴시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모습은 근본적으로 상호부조적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망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 논리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은 형평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확인해 왔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개별적 이해를 충족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자신을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오늘 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양산한 근간이 되었다.

이는 단지 사람들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연을 인간과 분리해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 또한 이러한 경쟁적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오랜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생태적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

---

2) 책임집필: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은 인류 및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부터 대안적 실천을 당장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대안적 방안으로 다시금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 주류 세계관 내에서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운동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서열(Ranking) 중심의 사회에서 관계(linking) 중심의 사회를 의미하며,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행복 중심의 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이는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정상과 비정상 등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일방의 다른 일방의 착취와 일방의 승리를 합리화하는 사회가 아닌 다양성을 중심으로 '다름'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명령과 복종이 아닌 상호 교류와 합의 등을 통해 사회를 운영하려는 원리, 인간 중심의 휴머니티(humanity)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현 세대의 필요와 합의만이 아닌 다음 세대의 필요와 합의까지를 배려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적 세계관을 지역사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확대하는 과정이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건강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임을 합의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고, 지난 참여정부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들도 속속 만들어지는 중이다. 이는 마을만들기의 중요성 및 그 실천이 확산되어 가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급한 성과 산출에 대한 압박, 재정 지원 여부에 따른 실천 여부 결정, 공동체적 관계망보다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 행정 및 전문가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천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일찍이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이 간파한 바와 같이,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수단과 과정 역시 공동체적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이 오랜 동안의 공동체 건설을 위한 노력을 통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수단과 과정이 공동체적이지 않는 한 결국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맞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취지와 아래에서 언급될 의제들을 모아 '2015년 마을선언 in 서울'을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뜻을 모아 채택·선언한다.



## 1장 통일된 생활세계로서의 마을<sup>3)</sup>

1. (통합적 운동) 지역사회로부터 마을을 만들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운동 등을 지칭하는데 있어 우리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마을운동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들이 모두 동일한 지향과 방법론을 공유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마을의 의미) 마을은 행정구역 등과 같이 물리적인 범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은 그보다는 공동체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범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지닌 지역을 만든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웃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상호부조에 근거한 공동체적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누군가가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주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하며 자신들의 생활과 삶, 그리고 관계망을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장이다. 따라서 마을은 주민들의 자치공간이기도 하다.
3. (마을의 주체) 마을의 주민은 거주하는 생활자가 일차적인 주인공이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회사원과 상인, 통학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며 이들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주민은 그 마을의 각종 의사결정을 포함한 운영의 주체이자 주인이다. 하지만, 마을의 주민은 아직 마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 역량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 미흡한 존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마을의 주민이 실질적인 마을의 주체이자 주인으로서 그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4. (시민을 양성하는 마을)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주민자치의 구체적 현장이다. 따라서 마을은 주민 스스로의 자치적 의사결정에 기반해 움직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주체로서의 주민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형성되며, 공동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은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성숙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마을만들기가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임을 확인하며, 마을만들기에 있어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5. (마을의 총체성) 마을은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 생활세계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

---

3) 책임집필: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활은 환경, 복지, 경제 등의 개별적 범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도 단순히 일회적인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의 과정이 일회적이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과 다양한 관심 분야로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려는 비슷한 지향의 활동들 간에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는 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에서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6. (마을의 개방성)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마을은 단순히 그 구성원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세상과 지역사회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운동은 단순히 가시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공동체적 관계가 지역사회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방성과 확장성을 중요시 한다. 이는 마찬가지로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과 목표로서의 마을이 가지는 함의에 동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7. (지향과 과정의 일치)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는 실천에 있어 공동체로서의 마을만이 전부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경주되고,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집단적인 노력 속에서는 공동체적 관계와 정신이 기본적으로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제반 운동의 지향에서만 아니라, 실천 과정 그 자체에서도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지향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고자 한다.

## 2장 마을만들기(혹은 마을 운동)의 세계관<sup>4)</sup>

가족만큼이나 오래되고 안정적이었던 공동체 마을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주로 해체의 대상이 되어왔던 탓으로 지난세기 말까지 거의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일상 활동 공간이자 삶터인 마을과, 생활주체이자 운동주체로서의 주민에 대한 관심은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 도시와 시민이라는 거대 공동체와 거대 집단 속에서 파묻힌 단순 행정사무 전달단위로서의 역할에 그쳤던 마을과 마을 속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능동적인 단위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

4) 책임집필: 김병권(사회혁신공간 데어)

21세기는 거대 공동체 속에 수동적으로 편입된 개인들의 시대도 아니고, 공동체 없이 오로지 고립적 개인들의 이기적 선택과 계약으로만 살아가는 시대도 아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호흡하고 살아 움직이며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사회의 운영원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마을 만들기는 거대 도시와 지역, 국가의 변화가 시작되는 변화의 발원지로서, 사회의 온갖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단서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실천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를 생활단위까지 끌어내리는 공간이 될 것이며, 더 나은 복지사회를 실현할 가장 안정적인 기초 단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들의 삶의 방식과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주는 일차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8. (정치) 직접민주주의는 참여적인 마을 활동을 통해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모두 평등한 주권자로서 스스로의 생활공간에서 자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회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대의제를 기본으로 발전해온 민주주의는 아직 가야할 먼 길을 남겨두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세계적으로 보통선거와 여성 참정권이 제도화 된 것이 겨우 한 세기 남짓이며,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선거에 더해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것도 고작 20여 년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민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는 여전히 수년 마다 한 번씩 표만 찍는 협소한 대의제 민주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속의 민주주의, 그리고 일상적인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과 같은 민주적 심화를 향한 실천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마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토론과 갈등의 조정이 매일의 생활에서 발생하고 해결해야 하는 마을 공동체 속에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훈련하게 될 것이고, 이웃들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일상 의제를 토론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합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마을 자체가 민주주의를 저절로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활동 속에서 스스로 성숙시켜갈 주민의 자치역량은 더 큰 민주주의 참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즉 주민들의 마을계획참여와 주민참여예산 경험, 주민제안 경험 등 다양한 수준의 주민 주도성 정착은, 도시에서의 시민 주도성으로, 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적극적 실현으로 발전할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는 대의제 한계를 뛰어넘어서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기초를 쌓게 될 정치적이면서 민주주의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자치와 민주주의 경험 쌓기는 이런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9. (경제) 마을에 밀착된 경제 단위들은 안정된 주민의 삶을 뒷받침한다. 우리 경제가 개발연대를 지나서 OECD국가의 일원이 된 지도 20년에 가까워졌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이 상당수 있을 만큼 경제 외연도 화려해졌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때로는 세계화와 첨단 기술혁신이 우리의 일자리를 더욱 협소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더 이상 거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삶의 질 개선이 보증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우리의 의식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와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 활동주체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키워갈 때다. 지역과 마을에서 정착할 이들 새로운 경제 영역은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등으로 대표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존립하고 있는 마을 곳곳의 소상공인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기존의 시장경제나 공공부문이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적자생존의 경쟁보다는 상호부조와 협동의 원리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생산과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데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지역과 마을 기반의 사회적 경제는 현실에서 매우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마을 단위의 경제조직들은 1)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위한 보완적인 축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도 자신들의 경제활동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과 마을에서 활동하는 협동적인 경제조직들은 시장경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극심한 경기변동 충격을 줄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유지, 수요유지를 실천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경쟁에서 배제된 소외 계층들이나 박탈된 사회계층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존엄 있는 경제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생활공간 속에서 생태와 환경, 재생과 순환 분야의 사업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생태와 경제를 마을 단위에서 하나로 접목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마을과 지역 기반의 공유 경제 조직들은 마을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자체에 귀속되거나 공동체 단위로 운영되는 경제적 자산과 경제적 단위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즉, 마을 공동체 개인들이 가진 여분을 나누는 공유경제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의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공유경제로 발전해 한다.

10. (문화) 마을 만들기는 복지국가를 향한 미래적, 혁신적, 대안적 공동체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가족이나 직장, 국가 공동체에 대한 관계가 빠르게 약화되거나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표적으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탄탄한

사회의 기본단위였던 가족의 급격한 해체와 변화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전형으로 불리던 ‘4인 혈연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주류화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본격적인 1인 가구시대, 솔로 소사어티 시대를 이미 맞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정규직조차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매우 견고했던 직장의 인간관계는 임시적이고 긴밀하지 못한 관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빠른 속도의 세계화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 정치 사회의 분권화 등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점점 더 무연사회로 가고 있으며 동시에 위험사회로 가고 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심화, 높은 자살률은 그런 경향의 반영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기존 관계의 해체국면에서 동시에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 관계는 가족과 같은 사적 관계나 국가와 같은 공적관계로 엄격히 분리되기 보다는, 경계를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 정서적 유대와 공적인 사회관계를 포괄하면서도 생활과 복지, 문화와 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관계로서, 즉 친밀권으로서 마을 공동체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을 살이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와 모임들은 이런 의미에서 단지 ‘과거의 마을 공동체 복원’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존 관계 해체와 개인화시대의 새로운 관계 요구를 바탕으로 창조되는 ‘혁신적이면서 대안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복지국가로 전환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과 국가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보육과 교육, 주거, 안전 등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해줄 유력한 기초 공간이자 단위로서 마을 공동체를 위치 짓고, 이러한 필요를 가장 적절히 만족시키는 방향에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1. (사회) 마을 만들기는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되살리는 활동이다. 우리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 여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승자독식의 극단적인 경쟁문화, 자연과 자원의 한계를 무시한 채 부채까지 동원하여 쏟아 부은 대량의 과소비 문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존하기 보다는 차별과 격차를 용인하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부작용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다. 그 결과 신뢰의 네트워크로 정의되는 사회적 자본은 크게 침식당하게 되었고, 만연한 사회적 불신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은 높아져갔다.

이와 같은 경쟁문화와 소비문화의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은 특히 교육 시스템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교육비와 비슷한 규모인 20여조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러한 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실적 심리적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는 상호부조와 협동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생활공동체에서부터 신뢰 관계 재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쟁과 함께 협동이 생활원리로 살아 숨 쉬게 하고, 개인의 자율적 삶과 공동체의 따뜻한 관계가 공존하게 하며, 고유한 역사와 지리적 환경이 물려준 전통적 가치와 미래를 향한 혁신적 가치가 마을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어울려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마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의 문화 예술 활동과 놀이들은 문화예술을 전문가의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주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더욱이 마을 만들기는 구성원 가운데 사회 경제적 약자나 노인, 여성, 이주민 등을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포용의 가치로 대하는 공동체로서 마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마을은 어린이들의 교육공간의 하나로서 재정립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생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익히게 해주는 현장 학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2. (환경) 삶터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환경과 자원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터에서 삶의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연과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익숙해진 에너지 과소비방식, 자연자원낭비에 길들여진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이 속한 다양한 수준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합리적인 공론의 형성과 의사결정에 의해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생활을 버리는 것도, 미세먼지에 함께 대처하는 것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지역과 마을 안에서 각자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도시의 삶과 농촌에서의 삶을 연결시켜야 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문화도 만들어져야 한다.

13. (노동) 마을은 다양한 노동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마을이 사회 공동체로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일 매일 다양한 주민 주체들이 부단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안에서 끊임없이 이뤄지는 주민들의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임금 노동’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정의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마을 기업이나 마을의 상인들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하는 전형적인 노동도 있다.

하지만 전업 주부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감내해야 하는 가사 노동, 다양한 주민 주체들이

가정이나 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물론, 마을 활동가들이 공동체 복원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는 자발적인 활동들은 통상적인 임노동의 틀로 해석되기 어렵거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떠받치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모든 유형의 활동을 평등하게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전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노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을 공동체에서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과,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마을 공동체 참여활동,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나 놀이가 생활 속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결합되게 할 공간이다. 경제생활과 사회생활, 문화생활과 개인 생활이 균형 있게 맞물리는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험공간으로서 마을을 주목해야 한다.

14. (주거) 안정된 주거권 실현은 지속가능한 마을 살이의 필수적 전제다. 근대화 과정에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파괴한 주범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였다. 토지와 상가, 주택이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유지해주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이자 재테크 대상이 되었던 탓이다.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개발과 재개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 폭등, 대규모 이사와 곳곳의 철거민 형성은 특히 도시에서 안정된 삶의 공간이자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마을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상황은 명백히 변하고 있고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가계 부채의 수렁 앞에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도 부동산 투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려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었다. 마을 만들기가 대도시까지 확산된 것은 명백히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안정된 주거는 안정된 마을 살이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마을과 지역을 개발과 재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와 마을재생,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자산 증식이 저절로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각자가 내 집 마련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다양한 유형의 주거형태를 통해서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필두로 최근에 실험되고 있는 협동조합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활성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이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 각자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 3장 마을만들기(마을 운동)의 방법론<sup>5)</sup>

15. (마을운동의 동력과 생활의 필요) 마을은 주민의 생활상의 절실한 필요와 욕구를 이웃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이다. 생활의 필요란 인간으로서 생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자원 (사회적 최소한, social minima)<sup>6)</sup>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자기발전(human development)<sup>7)</sup>을 꿈꾸고 준비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한다. 따라서 마을운동의 동기는 주민들이 생활상의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오며, 이를 이웃의 주민들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는 일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협동의 방법으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다.

마을운동은 생활의 필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특정의 정치적, 종교적 이념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체운동과 구별되며,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상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시된다. 또한 마을운동은 일상의 대면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이웃들 간의 관계망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와도 구별된다.

16. (생활관계망) 마을운동은 생활관계망의 복원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현대사는 공동체적 관계망이 철저히 해체되어온 역사이다. 해방 이후 국가가 주도한 근대화 전략은 압축적인 경제성장, 교육, 보건의료, 주거, 교통 등 대부분의 근대적 과제를 달성했지만, 그 결과로 농촌 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고, 자본과 토건이 중심이 된 압축적 도시개발정책으로 도농에 걸쳐 공동체적 기반 문화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이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파고들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극단적인 경쟁문화가 일상에 뿌리내리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배제와 단절이 구조화되고, 사회적 안전망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마을운동은 파괴된 관계망을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각기 지역사회라는 생활단위에서 일상적인 대면관계를 복원하고, 소통과 협동의 가능성을 찾아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적 생활관계망의 단초를 키워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복원되는 관계망은 지역과 동네에 따라 천차만별의 특성을 띠는 것이 당연하므로, 선부른 모델링이나 성급한 제도화를 앞세우기보다는 각양각색의 특성과 불균등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이 풍부함이 되도록 품어서 성장시키는, 지역사회의 마을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5) 책임집필: 유창복(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집행위원장)

6) 홍기빈, 멩거, 윌리엄 캅

7) 인간발달은 생애발달적 접근을 갖는 발달심리학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 양상과 과정을 의미한다.



17. (공론장과 마을공공성)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건강하게 확장된다. 개인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공론장은 우선,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공론장이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론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립의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론장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결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서 효율적이고, 결정 이후 승복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므로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켜가고 성숙시켜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18. (살림살이 경제) 관계망의 복원으로 시작하는 마을은 경제화를 지향해야 한다.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웃 관계망은, 그 해결의 방법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꼴로 진화하도록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을경제화이다. 즉 주민의 참여가 소비와 수익으로 나타나고, 책임이 활동비나 임금으로 보상됨으로써, 관계가 물질적인 형태를 띠게 되어 훨씬 견고하고 예측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참여하게 않았던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망의 확장을 촉진시키고 결국은 문제해결의 방식이 안정되고 나아가 마을관계망이 지속가능해진다.

살림살이경제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무형 자원의 조달하는 활동이며, 또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가는 이웃들의 관계망이 바로 마을

이니, 마을만들기가 곧 살림살이경제를 꾸려가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은 살림살이경제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자 방법이므로 마을과 지역의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에 더욱 천착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9. (도시재생) 토건적 개발이 불가능한 시대에,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으로 도시를 재구성하는 일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며, 도시의 비중이 압도적인 우리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미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철거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거나 커뮤니티 시설 건립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자립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주택개량을 비롯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보육과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마을운동이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마을관계망의 형성이 전제가 되는 않는 재생은 또 다른 토건에 불과하다.

한편 관계망의 회복을 기본으로 하는 마을만들기는 주거와 마을 공간 등의 하드웨어를 마을자산화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재생을 마을만들기의 출구전략으로 다루어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가져야한다. 즉, 살림살이 경제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역(마을)경제를 촉진하고 주거, 환경 등의 물리적인 재생을 담당하는 CDC(공동체개발회사, community development company)나 커뮤니티 신탁 등의 지역개발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20. (민관협력) 최근 민선 5기와 6기를 경유하며 지방 정부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대세라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풀뿌리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벌이던 때에 비하면 현저하게 마을관계망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관주도의 부작용이 심각해져 오히려 마을활동을 왜곡하거나 위축시키기도 한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행정은 그동안 위계적 통치적 활동에 익숙하거나 민간위탁이라는 갑을관계에 젖어있고, 민간 역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호간의 신뢰는 낮은 수준이며 협업의 경험도 취약하여 상호 불신으로 인한 건강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관료제적 행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된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공공정책은 이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한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가 유력한 해법으로 대두되어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그 양상이 복잡하고 원인 역시 단선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과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주도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시민의 참여와 융합적인 해법이 문제해결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sup>8)</sup>

마을공동체 영역은 대표적인 융합적 및 시민참여형 정책으로서 민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행전전달체계를 지양하고 행정의 칸막이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정책 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시켜야 한다.

21.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지향) 마을은 복지, 경제, 문화, 교육, 보건 등등 다양한 의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지며, 각각의 영역별 주체들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 따라서 마을의 힘은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주체들의 협력과 융합적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인 교류와 공감의 네트워크, 즉 지역사회의 시민생태계에서 나온다. 생태계는 다양성과 불균등성이 공존하면서, 이질적 요소들이 우연히 접촉하고 협력하게 되는 환경을 특징으로 한다.

동네와 지역사회, 그 보다 더 큰 기초 자치체 수준 등 다양한 위상의 생태계가 병존하며, 문제(의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적절한 위상의 생태계에서 논의되고 해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시민생태계는 성숙된다. 이것이 곧 민간(주민) 주도력의 지표이며, 지역사회라는 생태계의 시선으로 마을의 활동과 주체의 등장과 연결을 파악하고 생태계의 성숙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 4장 주체별 역할과 행동지침<sup>9)</sup>

22. (주민과 지도자) 주민은 지역사회 변화의 주도자이고 창의적 힘의 원천이다.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sup>10)</sup>. 마을에서 배출된 지도자는 주민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주체적 관점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① 평생학습의 자세로 생활상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한다. 특히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집단적 실천을 기회를 확보하며 지역사회의 주인공이란 자세를 견지한다.
- ② 마을자치의 관점을 가지면서 행정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 보조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발전의 미래상을 상상하며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인식한다.
- ③ 마을은 주민 삶의 행복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경제적 자립을 기반으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균형된 마을을 추구한다. 비물질적 경제 활동도 중시하며 협동조합에 기반한 지역경제를 지향한다.

8) 관계국가론, 네트워크 정부론

9) 책임집필 : 구자인(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0) 제7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완주) 선언문. 이하 평생학습, 주민자치, 경제자립, 상부상조는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4대 목표에서 인용.

- ④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상부상조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차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최선이 아닌 차선에도 합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간다.

23. (행정과 공무원) 행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동시에 공무원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방법론을 더욱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시스템이 현장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내부 역량강화에 더욱 집중한다<sup>11)</sup>.

- ①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검토 혹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안과 사업들이 지역과 현장 주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도입해야 한다.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방법론을 담은 기본법 제정과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등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방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sup>12)</sup>. 중앙정부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기능에 집중해야 하고, 개별 마을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 사업을 자제하면서 포괄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광역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 자치단체를 매개하고 조정하면서 지방자치의 관점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마다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우고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마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장려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인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기초 자치단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기초 자치단체는 마을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로서 주체적 관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 내에 다양한 마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직위 제도 도입,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가 마을만들기의 구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 교육 및 학습활동 강화, 전담 사무국 설치, 자치 권한 부여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④ 공무원도 마을의 구성원이자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주체이다. 공무원 스스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주적 학습운동을 전개하며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sup>13)</sup>. 또 직장과 주거지가 일치(직주일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주인공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 ⑤ 행정은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

11)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수원) 선언문

12)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수원) 선언문. 이하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주체별 행동지침은 충남도 민선6기 희망마을만들기 전략의 자치단체 시스템 구축 사업 모델에서 도출한 것임.

13) 제7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완주) 선언문

역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위해 민간과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진다. 상호대등한 협력관계의 기반위에 민관협치(거버넌스)의 정신을 반영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24. (민간단체와 활동가) 모든 민간단체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지방의제, 주민 자치, 평생학습, 자원봉사, 지역복지 등의 영역과 강하게 결합할 때 서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로 다양한 민간 그룹 사이의 횡적 연대망을 갖추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립,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빨리 가질 것을 요청한다<sup>14)</sup>. 활동가는 스스로의 활동을 성찰하며 서로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연대와 협력의 문화적 풍토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마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민간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행정 사업별로 분단되어 있는 민간의 ‘칸막이’ 문화를 크게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 ② 모든 민간단체는 상호 대등하며 모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존재근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지향이나 사상적 차이를 드러내기에 앞서 성실한 실천과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며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점에서 실천한다.
- ③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횡적인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되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축제나 공동주간, 학습토론회 등 연간 1회 이상 공동기획 행사를 추진하면서 정보와 활동을 상호공유하고 서로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④ 주민들의 생활문화 단위로 더욱 밀착하여 사랑방과 같은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접촉공간을 확대하면서 현장 지향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주민 속에서 현장 활동가가 배출되고 현장 활동가가 주민들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등 마을만들기의 실천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25. (기업과 소상공인) 생산적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기업은 지역사회에 고용을 제공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지역사회의 미래와 함께 발전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기반은 마을 주민들과 삶과 함께 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확인한다. 경제 단위가 국경을 넘다드는 시대임을 인정하더라도 지역사회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협동조합적 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국적, 다국적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청년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욱 많은 관심으로 가진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업체 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지역사회는 이런 기업,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원한다.
- ② 소상공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상호 공동의 이해를 모색한다. 초국적, 다

14)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수원) 선언문

국적 기업과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필요를 점검하고 상호협력하는 방향에서 지역사회와 밀착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 ③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사업장과 가까울 수 있도록(직주일치) 필요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종국적으로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 ④ 협동조합적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정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합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조기에 구성한다. 행정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26. (중간지원조직과 상근자) 중간지원조직은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을 상상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sup>15)</sup>. 상근자는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는 역할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①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는 자치단체 조례에 있으며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단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실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본법은 민관협치의 절차를 충실히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또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풀뿌리 지역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큰 원칙과 철학, 방향이 중심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②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공동학습과 합의를 통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직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민간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분배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의 자치단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하며 현장밀착형 지원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의 재정적 기반은 일차적으로 행정의 공공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공공적 역할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가 증가한다.
- ④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풀뿌리 민주주의 토양이 척박한 지역 현실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대등한 거버넌스의 성장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상근자들은 지역의 동의와 환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당연한 여러 과제에 대해 ‘차선의 합의’ 정신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풀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의 존립근거 자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7. (전문가) 마을만들기의 전문가는 풀뿌리 현장에서만 배출된다. 현장 실천의 경험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객관화시키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성장한다. 전문가 또한 현장에서 항상 배우는

---

15) 제7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완주) 선언문

과정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적 활동에 모범답안인 것처럼 해답을 제시하려고나 의사결정과정에 깊숙이 참견하는 등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주민들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전문가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① 전문가의 배출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 주민 속에서 마을 운동을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 속에서 성장하는 마을 지도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을 경험하여 전업적 활동가로서 중간지원조직이나 민간단체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는 전문가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언어’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 ②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현장지향형 실천 경험을 축적하며 전공 학문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영역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이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분단시키거나 지속가능한 삶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
- ③ 주민자치의 역사가 짧고 왜곡된 지방정치 현실 속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는 마을운동이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 기반위에 성장해갈 수 있도록 상호학습과 평생학습의 관점을 항상 가져야 한다. 마을 지도자와 전업 활동가, 연구자 등이 현장 공동견학을 실시하고 지역학회를 조직하는 등 서로 다른 ‘언어’를 통일시키고 현장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
- ④ 전문가도 마을로 돌아오면 주민이다. 마을 내에서 생활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 지식과 삶, 이론과 실천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28.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sup>16)</sup>. 그래서 모든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고, 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적극 참여한다.

- 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자주 제기되고 있고 마을운동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 활동의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마을운동이 성장할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도 비례하여 성장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 점을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은 분명히 인식하고 마을운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단체장은 주민투표로 당선되어 관료들을 통치하고 행정을 집행하도록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므로 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주민 공청회나 위원회 형식의 소극적 참여를 넘어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③ 의원 또한 주민투표로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고유한 역할과 더불어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 주요 지역 쟁점을 직접

1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 등 여러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④ 지방자치가 짧은 우리 역사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민주주의는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이 직접 책임져야 할 고유한 책임에 해당한다. 또 마을운동의 활동가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을운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 5장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의 다양성<sup>17)</sup>

29. (다양한 주민과 자원 연계)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주민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며,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주민 구성과 요구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서로 연계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자원이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을 포함한 유무형의 유의미한 자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마을 구성의 성격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

- ① 지역자원의 연계는 주민들의 공동 활동을 통해 촉진된다. 이는 공동 이해관계와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며, 주민 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주체는 주민이며, 자원 연계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일한 조직 시스템으로 귀결되는 수직위계적 방식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플랫폼 방식의 수평연결형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지역자원 연결과 시스템 구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이다. 이는 주민 당사자의 주체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0. (도시와 마을) 도시지역은 다양하면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익명성이 발생하며, 잦은 이동성을 갖는 게 주요 특성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마을 활동은 자기 선택에 따른 관계망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관계망은 단일하지 않고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숙명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다.

- ① 도시지역에서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 단계는 첫째 기초 커뮤니티의 형성과 확산, 둘째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 확장, 셋째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한 마을의 형성으로 구분된다.

---

17) 책임집필: 위성남(마포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단장)



- ② 초기의 커뮤니티 형성은 관계한 주민 당사자들 내부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관계망의 발달과 확장, 즉 네트워크가 활성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요구받는다.
- ③ 특히 주민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의 마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31. (농촌과 마을) 농촌지역은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그에 따라 실명적 관계성이 유지되며, 비교적 단일한 주민 구성과 높은 정주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마을 구성은 이미 형성된 마을수준을 뛰어넘어 관계망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소생산자인 농민 당사자의 주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생산을 결합하는 공동 활동이 중요하다.

- 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친밀성 중심의 관계망을 기반으로 상호 당사자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와의 긴밀한 교류가 중요하다. 인근 도농복합도시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로컬 푸드의 개념에 따른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
- ③ 지역사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 공유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마을 활동의 이익이 모두에게 귀속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도농복합도시와 마을) 도농복합도시는 도시일반이 갖는 익명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동시에 비교적 오랜 정주성으로 인해 학연과 혈연, 소지역별 관계망의 밀도가 매우 강하다. 또한 정주민과 이주민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주민의 주도성이 더 강하며, 지역 공간에 대한 애착도 대도시에 비해 무척 강하다.

- ①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소상공인의 마을 활동 참여가 중요하다. 정주민의 주도성은 지역 내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요소들에 대해 자칫 간과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물질적/역사적 자산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 ② 또한 인근 농촌지역의 마을과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순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전통시장과 상권) 전통시장은 거주지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우리의 거주지에는 다양한 생활편의 공간/시설이 존재한다.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 세탁소, 동네병원과 약국, 식당, 전통시장 등은 주민들의 익숙한 생활패턴/스타일을 유지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생활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드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 ①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형 상업자본의 동네단위로의 진출은 주민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를 크게 우려한다. 대형 상업자본은 그 규모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보다는 독자적인 상업망을 구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익숙한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② 따라서 전통시장의 유지와 활성화는 지역주민과 당사자 상인들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전

통시장의 활성화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마을공동체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③ 농촌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며, 주민들의 익숙한 생활방식(문화와 인적/물적 소통 등)을 보장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소생산자 농민들의 생산물이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 ④ 또한 도시지역에서 있는 여러 종류의 상권(商圈)은 자영업자인 상인들이 노력한 결과로 형성된 측면이 강하며, 특히 마을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상권의 발달은 행정의 촉진정책과 상인들의 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인 주민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에 기인하기도 한다. 최근의 마을 활동은 이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상인과 지역 주민들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상권이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34. (학교와 마을) 오늘날 경쟁주의 교육은 성적을 주요한 교육성과지표로 삼아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 교육자원의 활용을 방기해 왔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지역학교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교육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 ① 학교의 교사와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은 함께 ‘지역/마을학교’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풍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②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와 매우 긴밀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5. (아파트와 마을)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의 거주 형태가 이미 압도적이며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점차 아파트 거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에서의 마을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 ① 거주 공간을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해 아파트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당사자 주민들의 의해 시도되고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② 농촌지역에서의 아파트는 기존 농촌마을의 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분리된 섬으로 남지 않도록 집단 거주지로서의 아파트가 갖는 특성을 잘 살려서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36. (상권과 거주권(居住圈)에서의 급격한 지가 상승)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권뿐만 아니라 거주권에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한 원인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개발 중심의 행정정책이나 대규모/중규모 상업자본의 진출, 마을공동체 활동의 결과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는 지역의 사회구조를 심하게 변화시키며, 마을을 상품화 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추세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 ① 마을 활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촉진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주민은 지역 사회에서 자기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스스로 유지/확장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농촌지역에서도 농업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관계망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③ 이러한 자신들의 생활결정권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소유의 공유자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기금 조성, 공동체금융 등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직접 실행해야 한다.

37. (마을간 교류)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지역의 마을 사이에 다양한 교류 활동이 중요하다. 기존의 화폐 중심의 교류가 아니라 사람과 마을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자원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며, 지역사회의 자립적 생활기반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도시와 농촌 마을 사이의 교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인근 농촌지역과의 매우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6장 모두가 주인공인 마을 만들기<sup>18)</sup>

38.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은 마을주민의 일원이다. 즉 아동이라는 통칭으로 돌봄과 양육의 대상으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마을구성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을은 아동의 돌봄과 양육, 그리고 교육의 터전이며, 가정을 넘어서는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아동은 마을에서 놀고, 마을주민들과 관계 맺고,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이며, 마을은 아동이 꿈을 품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조건과 실력을 키우나가는 산실이어야 한다.

아동은 마을살이의 주체로서, 마을의 장소와 관계를 탐색하고 마을관계망을 구성하면서 학습하고 성장한다. 그러므로 마을은 무엇보다 아동이 주민의 일원으로 등장하고,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활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39. (여성)여성은 마을의 중요한 주체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인구비율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마을은 기존에 여성들이 주로 전담해 왔던 돌봄의 노동, 살림의 경제 등이 주변부가 아닌 주류로서 등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에서 여성의 중요성과 가치는 지역

---

18) 여러 사람의 공동작업이고 작업 진척이 가장 느리고 어려운 부분이다. 각 주체별 당사자들의 주도적 작업을 기대하며 토론의 초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협력자로서 마을을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로 여성들에게서 발현되는 여성주의적 가치인 대안적 노동과 경제가 마을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40. (노인)

41. (장애인)

42. (이주민) 외국으로부터 온 이주민들도 마을을 이루는 주체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다문화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듯, 우리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우리 문화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는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을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들에게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만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을이 다양성을 통해 보다 풍성해 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43. (청년) 아동청소년기를 통과한 청년들은 대체로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며, 유동적인 생활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러한 특성이 마을을 넘어서는 폭넓고 다양한 연결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을관계망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청년세대의 마을살이는 마을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체감하고, 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들이 마을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이라는 세대감수성을 존중하고, 청년들끼리의 교류 연대를 촉진하는 지역 내외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

44. (소상공인)

45. (도시지역 농민)

46.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47. (소가구에 대한 고려) 전국적으로 인구 구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가구(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의 급증은 지역에서의 활동 방식에 변화를 요구한다.

- ① 도시에서의 소가구는 가족 구성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상권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집중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 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은 소가구 당사자들의 연결망을 촉진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배치해야 한다.
- ② 농촌에서의 소가구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있으며, 구성된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노동의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 집약노동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형태의 농업문화와 조직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을 차원에서 소가구 중심의 농업 형태에 대해 적극 모색해야 한다.

#### 4. 향후 계획(안)

2015.8

- 1차 토론회(진안) 결과를 수렴하여 작성진 초안 수정 및 보완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대화모임(8월 목포) 참가 설명 및 의견 청취
- 검토 및 자문위원회 구성
- 2차 토론회 및 의견수렴 추진
- ※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병행하여 추진

2015.9

-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전국대회 1일차에 초안 제공
- 전국대회 기간중에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 병행
- 전국대회 마지막날(3일째) 2015년 마을선언 채택 및 발표
  -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표하고 나머지는 향후의 과제로 후속팀에게 인계

2015.10 ~

- 후속 마무리 작업 진행
  - 작업 과정 및 결과 보고서 발간
- 1차 선언 준비 평가 및 차기년도 연속작업 모색

[부록1] 2015년 마을만들기전국대회 및 서울마을박람회 소개



2015 서울마을박람회 • 제8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 마을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다짐하는 **마을선언**
- 우리의, 마을의 지혜를 모으는 **컨퍼런스**
- 서울과 전국의 마을이 걸어온 길이 보이는 **전시**
- 만나고 공감하며 인연이 되는 **교류회**
- 서울마을살이를 경험하는 **마을여행**

작은 힘이 이어져 큰 힘을 이끌어내는 도르래처럼 마을을 향한 우리의 작은 마음들은 세상과 닿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 마을의 형성과 확장, 문제의 해결을 함께 이야기하는 서울마을박람회와 마을만들기전국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 2015. 9. 10 (목) - 9. 12 (토) 장소 | **혁신파크** • 시청 • 각 마을 현장

주최 서울특별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진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주관 제8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조직위원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 마을들의 축제의 장인 **서울마을박람회**와  
전국의 마을만들기 일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제8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가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마을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지를 다지는 선언과 토론의 장,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 토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방식의 주민주도 마을사업이 소개되고 토론되는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9.10(목) ~ 9.12(토), 3일간  
\* 마을여행 : '15. 9.10.(목)~ 9.13(일), 4일간
- 장 소 : **혁신파크**, 서울광장, 시청(시민청 등), 서울시 내 10여개 마을
- 참가대상 : 전국의 마을만들기 주민 리더와 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 프로그램
  - 1일차 - 개막식(서울마을약속, 마을간 MOU체결식, 마을공동체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기획컨퍼런스 I, 하소연대회 등
  - 2일차 - 기획컨퍼런스 II, 자유주제 컨퍼런스, **마을예술의 첫 번째 정모** 등
  - 3일차 - 자유주제 컨퍼런스, 폐막식(마을선언, 차기 개최지 선정 및 소개) 등
  - 상시행사 : 마을전시, 마을인연맺기 교류, 혁신파크 투어, 홍보버스, 마을여행



개막식



컨퍼런스



마을인연맺기 협약식



하소연 대회



마을이 보이는 전시



마을여행



마을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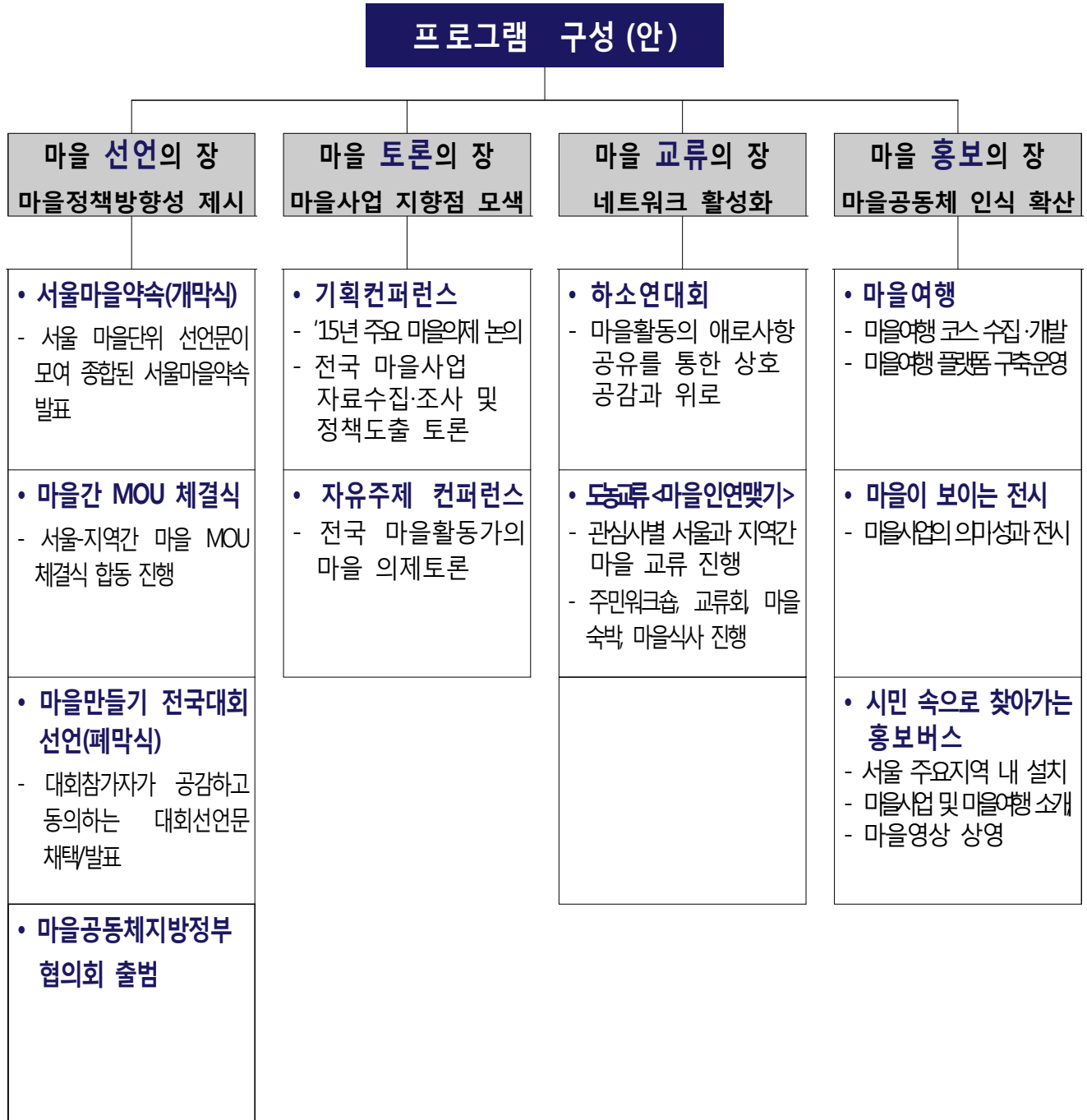


홍보버스

- 주 최: 서울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 주 관: 제8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조직위원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구성(안)



○ 프로그램 안내

함께 열고 닫는 개폐막식 | 마을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다짐하는 마을선언

**개막식 | 9.10(목) 16:00 | 야외광장**

다양한 단위의 이어짐이 보이는 개막식. 서울 40여개 마을들의 다짐을 모은 <서울마을약속>, 서울과 지역의 지속적 마을간 교류를 약속하는 <마을인연맺기 협약식>, 전국 시군구 단체장들이 마을에 대한 마음을 모으는 <전국마을공동체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이 진행됩니다.

**폐막식 | 9.12(토) 14:00 | 다목적홀**

전국의 지혜를 모은 <마을선언> 발표와 2016년 제9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개최지를 발표하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을의 지혜를 모으는 컨퍼런스

**기획 컨퍼런스 | 9.10(목) 14:00, 9.11(금) 10:30 | 다목적홀**

박람회와 전국대회의 올해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기획 컨퍼런스로 마을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다짐하는 마을선언부터, 사람의 성장, 마을의 성장을 고민하는 기획컨퍼런스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자유주제 컨퍼런스 | 9.10(목) 14:00 | 혁신파크 내**

누구나 열 수 있는 자유주제 컨퍼런스로 서울 그리고 전국의 마을활동가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현재와 미래의 지혜를 모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제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구분	주제	담당
1	청소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성장에서 마을을 바라보다'	협동조합 드림아토
2	청년 청년, 우리는 왜 마을에 공간을 마련했는가?	서울마을센터 청년사업팀
3	소통 '마을운동과 직접민주제'	직접민주연구원
4	회복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묻다. -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5	경제 자치구 마을넷 형성과정과 발전방향	(사)마을+ 서울마을넷
6	경제 지속한 가능한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조직을 만드는 방안	서울마을경제사업단
7	중간 중간지원조직의 행정혁신	서울마을센터 경영지원팀 & 서울혁신센터
8	종교 마을에서 플랫폼으로써의 교회	예수장로회마을만들기네트워크
9	정치 주민자치, 동장직선제	KYC(한국청년연합)
10	기타 서울마을행복지표 중간보고	서울마을센터 정책연구팀

## 서울과 전국의 마을이 걸어온 길이 보이는 전시

### 마을전시 | 9.10(목)~9.12(토) | 혁신파크 내

산책하듯이 걷다 보면 서울과 전국의 마을이 보입니다.

- 전시1) 함께 읽고 다듬는 <마을선언>
- 전시2) 서울마을사업 4년간의 성과 <서울마을사업을 소개합니다>
- 전시3) 마을살이 체험 전시 <내가 마을살이를 한다면?>
- 전시4) 서울 25개 자치구의 마을사업을 소개하는 <25개 자치구 마을이야기>
- 전시5) 서울시의 실국이 진행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알리는 <키워드 마을>
- 전시6) 서울과 지역의 마을간 교류를 보여주는 <마을인연>
- 전시7) 전국의 마을관련 발간도서를 한곳에 모은 <마을 읽기 도서관>
- 전시8)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20선

## 만나고 공감하며 인연이 되는 교류회

### 하소연대회 | 9.10(목) 18:00 | 야외광장

마을활동을 하며 사람에게 서운했던 일, 사업이 어려웠던 일을 나누며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죽겠어” 등등 으뜸 하소연 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소연 1등 상품은 푸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이 자리에서만 이야기해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추후 모집 예정

### 마을예술의 “첫 번째 정모” | 9.11(금) 18:00 | 야외광장

마을예술인들의 첫 번째 정보를 준비합니다. 서로의 재능을 무대에서 나누며, 마을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밥상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마을예술인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마을인연맺기 교류 | 9.10(목)~9.12(토) | 각 마을현장

마을인연맺기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과 지역의 40개 마을 20쌍이 서울에서 서로 만나 교류합니다. 마을박람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도 방문하고, 인연을 맺은 마을에서 식사와 숙박, 마을여행 등을 하며 인연을 쌓아갑니다.

\*2015년 마을인연맺기 공모 선정 마을에 한함.

## 서울마을살이를 경험하는 마을여행

### 마을여행 | 9.10(목)~9.13(일) | 각 마을현장

‘마을’, ‘마을’ 하는데 도대체 마을이 뭐지?

서울의 마을에 호기심이 생긴다면 마을여행하세요. 마을의 자원, 마을의 사람, 마을의 이야기 등 마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모여 있는 마을여행을 함께 떠나요.

## 중간지원조직 기관과 혁신파크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

### 혁신파크 투어 | 9.10(목)~9.12(토) | 혁신파크

옛 국립보건원 자리에 위치한 혁신파크에는 현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청년허브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위치해있습니다. 박람회와 전국대회 기간에 각 기관에 대한 소개 및 혁신파크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혁신파크 투어가 진행됩니다.

## 상시 행사 및 전체 일정표

### <상시행사>

마을전시, 마을시장, 혁신파크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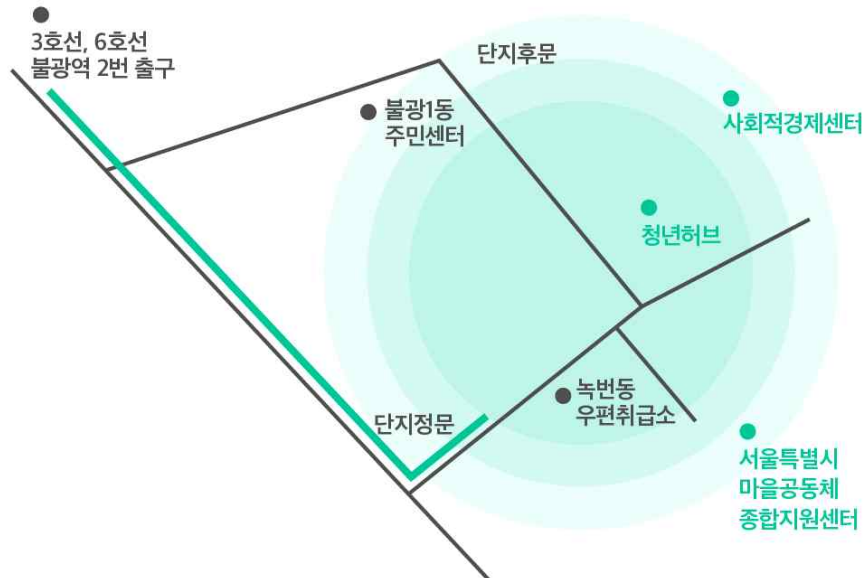
9.10(목), 9.11(금) 10:00~20:00 / 9.12(토) 10:00~16:00

마을여행 : 9.10(목)~9.13(일)

\* 마을여행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 및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9월 10일(목)	9월 11일(금)	9월 12일(토)
10:30		기획컨퍼런스Ⅱ	자유주제 컨퍼런스3
12:00			
13:00		자유주제 컨퍼런스1	폐막식
14:00	기획컨퍼런스 I		
15:00			
16:00	개막식	자유주제 컨퍼런스2	
17:00			
18:00	하소연대회	마을예술 네트워크 파티	
19:00			

## 행사장 혁신파크 찾아 오시는 길



## 문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02) 354-0765, 02) 385-2642, [www.seoulmaeul.org](http://www.seoulmaeul.org)

## [부록2]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소개

###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소개 및 가입신청

현재 전국에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삶을 가꿔가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마을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을 이어주고, 마을만들기 참여자들의 역량을 다각도로 지원·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26일, 제6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in 수원에서 전국의 마을지원센터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사회의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고, 조사·연구 및 인재양성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원센터협의회에서는 향후 지방의제21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민자치, 평생학습, 자활 등 모든 민간그룹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실천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고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망을 복원하여 지역 단위로 협동사회경제가 구축되는 대안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이 살아 있고 주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에서는 귀 기관이 축적해온 활동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마을만들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귀 기관을 회원기관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문서 :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국(koreamaeul@gmail.com)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

[붙임 2]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가입현황

[붙임 3]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가입신청서

## [붙임 1]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

지금 세상은 세계화를 말하며 지역과 주민 삶의 모든 영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로 편입시키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오랜 가르침과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1992년 리우 회의의 관점을 따르려 한다. 또 “뿌리 깊은 나무가 꽃 좋고 열매 많다”는 용비어천가 2장의 발상이 지역 발전의 출발점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지역에 밀착하여 마을 주민들과 오랫동안 실천해왔다.

이런 마음이 모여 들불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 활동이 늘어왔다. 또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자치단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를 만들어 매월 대화모임을 열고 전국대회도 매년 개최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시행착오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도 많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현장에서 본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튼튼한 풀뿌리 상호연대의 전국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역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중앙조직이 아니라 작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하려는 것이다. 또 마을 주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협의회에 기본적인 역할임을 인식한다.

하나, 전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직면한 조사 및 연구, 인재 양성, 교육방법론 개선 등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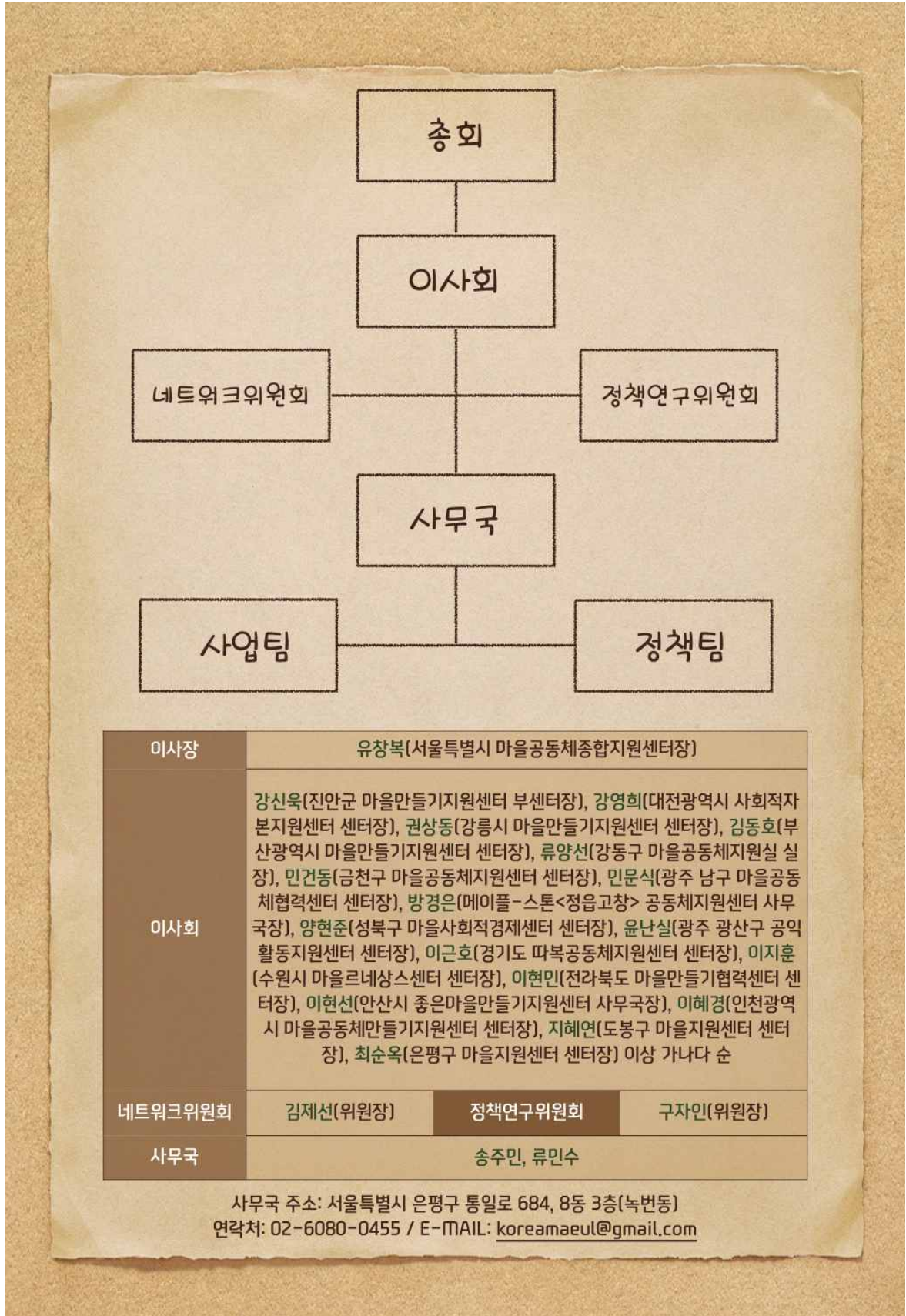
하나,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만나 마을만들기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하나, 전국의 마을 리더와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의제21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민자치, 평생학습, 자활 등 모든 민간 그룹들과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풀뿌리 마을과 사람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대를 복원하고 지역 단위로 협동사회경제가 구축되는 대안적인 사회를 꿈꾼다. 우리는 전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풀뿌리 마을이 살아 있고 주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13년 9월 26일  
한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 창립 발기인 일동

[붙임 2]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조직도(2015년 5월 현재, 총 17개)





[붙임 3]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가입신청서

##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가입신청서

No. \_\_\_\_\_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직원 수		E-mail	

상기 단체는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 요청문서 : 귀 기관의 운영비전 및 미션, 조직도, 주요업무 등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단체 : \_\_\_\_\_

신 청 인 : \_\_\_\_\_ (인)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 [부록3] 참고 선언 자료

###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선언문

####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21세기를 들어 한국사회는 건전하고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은 급속한 도시화와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고 도시와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해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주민리더들은 10여년전부터 읍면동, 마을 단위에 서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참여정부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각 부처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준비과정의 부족, 미성숙된 지역추진체계 등으로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 참가한 주민리더,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학습과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간사 제도의 경험을 통해 행정의 역할과 주민참여의 과제를 진단하였다.

전국대회 참가자들은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대회 슬로건에 깊이 공감하며 이제는 마을이 공공정책과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마을만들기를 할 때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지역 고유문화와 역사, 자연환경, 경제 활력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1. 우리는 사람이 마을만들기의 핵심이자 당면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을주민의 내부역량 강화와 마을만들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술적 방법을 발전시키고,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07. 4. 14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가자 일동

## 제5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선언문

### “천개의 마을이야기, 세상을 바꾸다”

마을만들기전국대회는 2007년 제1회 진안대회를 시작으로 제4회 대회까지 성장하면서 마을만들기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학습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제5회 창원대회는 “천개의 마을이야기,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하에 대한민국 마을만들기 10년의 흐름을 돌아보고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대화모임의 성과를 결집시키며, 진안에서 전국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되는 전국대회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구도심재생지역인 마산창동거리에서 마을만들기현장과 직접 결합된 전시, 축제, 키퍼런스, 학습교류모임 등이 진행되어 마을만들기 대회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대회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변화의 노력들이 사회를 보다 인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간다는 마을만들기의 정신을 확산한다.
- 인재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임을 확인하고 마을리더 육성 및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한다.
- 정부와 지자체,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원화된 마을만들기 추진 정책들이 상호보완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 이번 대회에서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간 협의회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키 위해 노력한다.
- 마을만들기 추진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마을만들기 담당자간의 연락모임을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2012년 6월 9일

제5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가자 일동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선언문

2013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 마을이 만든 사람”을 슬로건으로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각지의 마을만들기 리더와 활동가들은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교류하고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 등에 토론을 하였고, 수원 주민들과 뜻깊은 대화와 현장 탐방도 하였다. 이틀째 오후에는 마을만들기의 주요 쟁점을 14개 주제로 나누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도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다.

또 전국의 37개 자치단체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만들기 행정을 현장 중심, 과정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 전국 자치단체장의 동참 요청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전국의 14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모여 지원센터 상호간의 공동과제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모색, 민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 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의 창립총회도 개최하였다.

우리들은 이번 대회에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매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행정 주도로 다양한 사업이 도입되면서 현장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행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숙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행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열심히 촉진하되 공무원이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방법론을 더욱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시스템이 현장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민관협력의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지역인재 육성과 내부 역량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

1.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검토 혹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안과 사업들이 지역과 현장 주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위에 도입해야 하고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방법론을 담은 기본법 제정과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등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방과 민간으로 이양하기를 요청한다.

1. 모든 지역사회는 마을만들기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자치, 평생학습, 자원봉사, 지역복지, 자활 등의 영역과 강하게 결합할 때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 단위로 다양한 민간 그룹 사이의 횡적 연대망을 갖추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립,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빨리 가질 것을 요청한다.

2013년 9월 28일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가자 일동

## 제7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선언문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꿈꾸며, 마을의 미래를 상상하다”

제7회 완주대회는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추진해온 대화마당의 성과와 작년에 창립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나누는 장이었다. 또 완주군의 "와일드 푸드 축제"와 함께 진행하면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전국의 마을만들기 일꾼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험을 통해 생활정치 현장인 지역사회를 되돌아보고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 본래의 의미를 재점검하였다. 또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주민, 행정, 그리고 매개자인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의 풍요로운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

이번 대회 모든 참가자들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마을만들기는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행정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마을에 밀착하여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회 참가자 모두는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한국마을만들기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풀뿌리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주민은 사회 변화의 주도자이고 창의적 힘의 원천이다.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역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 공무원도 마을의 구성원이자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주체이다.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주적 학습운동을 전개하며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중간지원조직은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을 상상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14년 9월 27일

제7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가자 일동

##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릉동 꿈마을 선언문>

우리는

이웃과 이웃이 반갑게 인사하고, 소통하며, 협동할 수 있는 마을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당당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을로 공릉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였다.

우리가 꿈꾸는 꿈 마을은

1.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꿈 공동체 마을이다.
2. 배움과 가르침이 마을 곳곳에 넘쳐나는 학습공동체 마을이다.
3. 마을 곳곳에 꿈꾸는 문화가 흐르는 문화공동체 마을이다.
4. 이웃을 돌보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마을이다.

우리 마을을 아끼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은 꿈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다.

꿈마을 공동체는 공릉동을 꿈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에  
온 마을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2. 9. 9.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 <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가치와 약속 9 >

꿈마을에서는

<가치>

01.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02.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03.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04.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05. 공동체 활동에 신나고,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06.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들에도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약속>

07. 경쟁을 줄이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08. 일주일에 하루는 컴퓨터, 휴대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09.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와 음식을 나누기 위해 일을 잠시 멈춥니다.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선언문

우리 사회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국가운영방식이 관리에서 협치로 바뀌고 소통과 참여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지역개발도 행정과 전문가 주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하는 지역계획수립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민선 4기와 5기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 혁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임을 확인하였고 물량중심의 지역개발행정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소통행정으로 전환시켜 왔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관련 법률제정,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고 중앙정부에 마을만들기의 독창성과 자율성, 주민중심의 기본이념에 이반되는 획일적인 평가와 물량위주의 지원방식은 지양할 것을 요구하며 분권과 자치의 큰 틀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맞아 각 지자체에게 마을만들기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중심, 과정중심, 현장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기조에서 우리 지자체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한다.
1. 우리 지자체는 주민리더십 강화, 현장 활동가 양성 등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지원한다.
1. 우리 지자체는 획일적인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과 개성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마을만들기 담당공무원 및 현장 활동가간의 교류와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우리 지자체는 마을만들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자체에게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1. 우리 지자체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에 힘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2013. 9. 26.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